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6강 ‘작은 음악회 - 여름밤의 아리아’

실력과 성악가들의 감미로운 선율 ‘힐링’



지난 10일 오후 광주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열린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6강좌 ‘여름밤의 아리아’에서 소프라노 홍채린과 테너 황태경이 아름다운 듀엣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왼쪽). 공연 후 아카데미 원우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정은솔 기자

소프라노 홍채린·테너 황태경 듀엣
오페라·한국가곡·뮤지컬 넘버 등 다채
원우들 ‘브라보’ 연발하며 공연 즐겨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10일 오후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열린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6강좌는 ‘여름밤의 아리아’라는 주제의 작은 음악회로 꾸며졌다.

이날 음악회는 초여름 밤의 정취 속에서 감미로운 선율을 전하며 원우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후식을 선사했다.

공연은 실력과 성악가인 소프라노 홍채린과 테너 황태경이 이끌었다. 두 사람의 존재감만으로 도 기대를 모은 음악회는 오페라 아리아부터 한국가곡, 뮤지컬 넘버를 넘나들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공연의 막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하이

라이트 중 하나인 ‘축배의 노래(Brindisi)’가 열렸다. 환희와 흥겨움을 담은 이 곡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과 폭발적인 성량으로 오프닝부터 좌중을 사로잡았다.

이어 소프라노 홍채린은 솔로 무대로 감성을 고조시켰다. 영화 ‘미션(The Mission)’의 테마곡을 기반으로 한 ‘넬라 판타시아(Nella Fantasia)’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홍채린의 부드럽고 맑은 음색은 공연장을 잔잔한 감동으로 물들였다.

이후엔 익숙하고 서정적인 한국가곡이 이어졌다. 홍채린은 섬세한 감정선을 담아 ‘꽃피는 날’을 노래했다.

황태경은 한 편의 시처럼 다가오는 ‘마중’을 통해 특유의 풍부한 중저음으로 원우들을 감동시켰고 일상 속 사랑과 기다림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감재를 받았다.

오페라 아리아는 두 아티스트의 기량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황태경은 오스트리아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Dein ist mein ganzes Herz’를 열창하며 독일어 특유의 발성과 테크닉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다.

뮤지컬 넘버는 공연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홍채린은 ‘마이 페어 레이디’의 대표곡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를 통해 밝고 사랑스러운 감성을 전했고 황태경은 ‘지금 이 순간(This is the Moment)’을 불러 원우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All I Ask of You’와 ‘Phantom of the Opera’에서는 두 사람이 완벽한 듀엣으로 오페라의 긴장감과 로맨스를 오가며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안겼다.

황태경의 단독 무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공연의 정점을 장식했다. 대중가요임에도 클래식한 발성이 더해져 곡이 지닌 메시지가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왔다. 특히 원우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관객이 아닌 무대와 노래의 주인공으로서 곡을 온전히 즐겼다.

마지막 곡 ‘Volare’는 두 사람의 이탈리아어 듀엣으로 흥겹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공연장을 들썩이게 했다.

열창이 끝난 뒤 원우들의 “브라보”, “브라비”, “브라비” 외침 속에 앵콜 요청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한편 소프라노 홍채린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같은 대학 성악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국내외 유수 콩쿠르 수상자이며 다양한 오페라와 국제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 중이다.

테너 황태경 역시 국내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뮤지컬 ‘레미제라블’ 마리오스 역을 포함해 다수 오페라 주역을 맡았다. 현재는 숭실대학교 음악원 외래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위한 무대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정은솔 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목포시의사회,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목포시의사회는 지난 11일 목포에메랄드웨딩홀에서 ‘제20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명원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회원, 장학금 수상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목포시의사회는 ‘지역인재를 배출해야 지역이 산다’는 기치 아래 목포 15개 고등학교 3학년 문과·이과 수석 학생 3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1대1 매칭으로 전달했다.

목포시의사회는 지난 2006년부터 총 6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약 6억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기여해왔다.

조생구 한사랑병원장은 “장학금 전달을 위해 힘을 모아준 최태욱·김영식 선배와 후배 원장들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였던 최정남 서해환경 사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20년간 변함없이 후원해 준 모든 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목포시 사회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동부신협, 버스정류장에 부채 비치

광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하 광주동부신협)은 12일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25곳에 부채 120여개를 비치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무더위 속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신협의 따뜻한 관심과 실천을 전하기 위함이다.

광주동부신협이 자체 제작한 부채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후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면 된다.

구회상 광주동부신협 이사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지역민의 불편을 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신안경찰, 2분기 경찰발전協 정기회의

신안경찰서는 12일 “최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각 과·계장과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분기 정기회의 및 신입회원 위촉식,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도 신안경찰서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 및 활동 등이 공유되고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신규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신안 지역의 치안활동 파트너로 주머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 신안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치안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신안=양훈 기자

결혼

▲허흥·김희란씨 아들 만재군, 김용수·송영숙씨 딸 수라양=15일(일) 낮 12시 광주 북구 문흥동 가사다루체 웨딩홀 1층 루체를, 북구 문흥동 100-010-3629-9146.

부음

▲김병수씨 별세, 허권(KIA 타이거즈) 홍보팀 프로씨 빙부상=발인 13일(금) 낮 12시30분 광주 천지장세식장 101호(062-527-1000).



광주매일신문 ‘미디어 환경변화와 언론 대응’ 사내연수

광주매일신문은 12일 본사 교육실에서 편집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일환으로 사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김형주 아태라거뮤니케이션 대표가 ‘미디어 환경변화와 언론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대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방언론이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한 고민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그는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레거시 전통 언론의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지방언론이 갖고 있는 한계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고정적인 독자층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 소비 경로는 여전히 포털사

이트가 우세하나 유튜브, SNS 기반 뉴스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뉴스 콘텐츠보다 해석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짧은 영상 ‘쇼츠’에 주목하는 이유로 ▲강력한 파급력 ▲알고리즘 추천 중심 시대 ▲다양한 세대와 연결고리 ▲로컬 뉴스의 재발견을 통한 공감 유발 등을 꼽았다.

김형주 대표는 “지역 언론도 지역 명소, 스토리텔링, 지역 재난정보를 속도감 있게 전달하고 지역 인플루언서와 협업 등으로 관심과 주의를 끌어야 한다”며 “매체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사업 아이템을 잡고 쇼츠·릴스 등에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다기 기자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라미 빨래방 4호점’ 개소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12일 “취약계층 이불세탁 및 맞춤형 돌봄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동구라미 빨래방 4호점’ 개소식을 산수2동 마을사랑채 호랑꼬두메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마영희 산수2동 자원봉사캠프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가 운영하는 ‘동구라미 빨래방’은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불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수거하고 세탁해 다시 전달하는 복지 사업이다.

동구라미 빨래방 4호점은 조상권 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후원을 받아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및 말벗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6년째 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조상권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센터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조성에 기여해 주길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순권 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 “지난 2021년부터 지원1과 지원2동, 충장동 빨래방에 약 1천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천세대의 이불 세탁 봉사 활동을 했다”며 “다른 동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마을 세탁소와 연계해 이불세탁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은정 기자

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5개구 통합월례회’ 성료

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일 송원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작은 손, 큰 희망!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2025년 5개구 통합월례회를 개최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와 실천을 다짐한 이날 행사

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윤영혜 광산구의회 등과 소속 원장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아동 인권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작은 손, 큰 희망!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영유아 보육의 소중함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연합회와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향해 광주가 나아오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다기 기자



전남도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시·군민참여단 교육’ 개강

전남도는 지난 11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16개 여성친화도시 시·군민참여단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여성 리더스 아카데미-여성친화도시 시·군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전남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는 시대 흐름과 사회 변화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운영된다.

올해는 전남행복드림 여성친화도시 시·군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전남여성가족 리더십 포럼, 전남여성 행복드림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앞으로 시·군 여성리더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친화도시 시·군민참여단이 정책 동반자로서 따뜻한 여성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전남 발전을 이끄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